朝鮮日報
十一日夕刊四面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代表電話光(二)五〇〇番

社說 滿鐵問題의 重大性

一

南北戰爭一過後 蔣·張兩巨頭의 妥協은 日本의 滿蒙政策遂行에 對하야 一層重大한 影響을 미츠게하엿다 張氏는 對內的으로 閻·馮等 西北勢力의 存在를 즐겨 承認하야 西頭에 一頭되는 것을 반가워한 배 안이오 또 對外的으로는 東北邊陲에 잇서서 孤守의 處地를 걱정하여 오든 것도 事實이엿든 바 中央勝利가 거의 決定的으로 보힌 그때 關內를 뛰여든 것과 中央名分을 延長하야 自家의 對內地位를 確立하고 對外關係를 轉換코저 한 것은 무릇 張氏로서의 政治的 實績인 것을 否認치 못한다 그럼으로 今般 中國政勢가 急變되지 안는 限에는 張氏의 中央服從的 態度에 變化가 업슬 것임을 豫想케하는 同時에 日本의 滿蒙利權交涉도 奉天에서 南京으로 方向을 돌니지 안흘 수 업다 그러나 東三省外交의 實權가 依然 張氏에게 잇다하야 그 外交權移管을 依然히 回避的 形式的 移管에 不過하는 것이라 推定하고 張氏와의 交涉을 展開코저 하는 것은 日本의 苦衷을 또한 엿볼 수 잇는 일이나 問題는 儼然히 日本對中國의 問題인 것을 避치 못한다

二

中國側은 日本으로 하여금 今日以上의 鐵道線路敷設을 不許할 方針임으로 過去日本이 어더노흔 鐵道敷設權은 無用이오 또 現在日本借款에 依하야 敷設된 鐵道로부터 日本의 勢力을 驅逐하도록 努力하되 그 手段으로서는 交通의 中央移管을 實現코저 한다 卽 吉長, 四洮等 國有借款鐵道는 中央에 移管하야 債務整理會議에서는 이것을 合併整理함으로서 借款에 附屬한 여러가지 日本의 權利 吉長線의 滿鐵委任經營權 四洮線의 監督權等을 回收하야 滿鐵의 培養線을 업센다는 消極的 方法을 가지고 또 滿鐵에 幷行하는 鐵道를 敷設하야 滿鐵의 獨占的 利益을 共分코저 하는 積極的 方法을 가저서 日本滿蒙政策의 大動脈인 滿鐵의 權益을 制限코저 한다

三

그럼으로 日本의 滿鐵利權을 中心한 滿蒙問題交涉은 目睫에 逼한 한 重大한 課題로서 日本朝野의 非常한 注意를 喚起하고 잇다 이에 對하야 中國側은 더욱더욱 熱意를 기우려 昨年七月 葫蘆島築港工事를 일으키고 滿鐵西側은 打通線의 北端通遼와 洮昂線의 南端洮南을 連結하며 齊齊哈爾로부터 黑河에 延長하야 葫蘆港이 完成될 때면 只今까지 滿鐵에 吸收되든 貨物을 大部分 打通線으로 도라가게 하며 滿鐵의 四洮 洮昂線을 全然 無意味하게 만들고 滿鐵東側은 吉海線을 다시 北方에 延長하야 北滿의 貨物을 吸收케 하며 또 現在 吉海 奉海線을 京奉線에 堂堂히 連絡을 實現하야 滿鐵과의 貨物爭奪戰이 일어나게 하엿스며 中國側은 運賃을 引下하야 滿鐵로 하여금 困境에 싸지게 하엿다 더욱히 最近 張學良氏는 外國의 資本을 吸收코저 한다는 바인즉 日本滿蒙政策에 對抗하는 中國滿蒙政策은 더욱 더욱 『템포』로 進展될 것이다

四

이 點에 잇서서 日本勢力의 北進路는 또다시 延長되엿다 그럼으로 이 對策으로서 滿鐵外務陸軍拓務의 首腦者는 一、現在의 旣得的 權益을 確保코저 하면 잇서서는 從來의 利權을 固守함으로서만 되는 것이 안이오 中國의 積極的 滿蒙政策을 反對키 爲하야 相當한 決心을 가질 것 二、共存共榮主義라 하면서 中國側이 滿鐵의 培養線을 敷設할 때에는 日本도 同樣으로 도 이것을 敷設하야 勢力의 均衡을 圖謀할 것 等을 決議하엿다는 바 兩者의 政策이 더 머나 背馳되는데 吾人은 그 前途를 豫斷치 안흘 수 업는 同時에 이곳 極東政治的 暗影에 한 端緖임을 劃期하고 더욱이 國際의 關係가 重大視된다

陝西、甘肅에 空前大飢饉
餓死者二百餘萬
刻刻瀕死의 危地에 잇는 四百餘萬住民
累累한 屍體에 烏鵲만 亂飛

【南京九日發】 馮玉祥氏의 反亂以來 陝西, 甘肅地方의 飢饉狀態는 調査不能으로 詳細不明이엿섯는데 先者에 中央政府로부터 特派된 于右任, 胡適兩氏等의 報告가 六日中央에 到着하얏다 飢饉의 狀態는 想像以上으로 甚酷하야 六月까지의 死者는 西安附近十六個縣만 二百萬에 達하고 現在아죽도 四百萬의 住民이 嚴寒과 飢餓에 刻刻으로 죽엄의 危脅을 當하고 잇다 西安附近, 武功, 興平, 涇陽, 醴泉, 秋風, 鄜縣等 村落은 住民이 거의 死亡 或은 流離하고 田園이며 家屋은 荒廢한 狀態이다 鄜縣一村에도 埋葬하지 안흔 死體가 一萬以上이나 道傍에 굴러잇고 외마귀가 그우홍로 떼돌아 단여 참아 눈으로 볼 수 업는 悽慘한 地獄 그를 건이다 陝西省의 半分即 卅七萬方支里는 三年來 全혀 收穫이 업고 草根과 鼠類를 잡아먹든 것도 滅種이 되어 約四百萬의 住民이 餓死에 直面하고 잇는 狀態이다 中央서는 先者에 決定한 八百五十萬元의 陝西省饑饉救濟公債를 至急募集에 着手하는 外 即時 五十萬元을 同地에 보내어 救濟하기로 決定하얏다

大豆買占決議 學良氏에 要望

【哈爾賓十日發】 北滿財界의 不況은 大豆의 賣行不振에 잇다하야 哈爾賓總商會外二十餘團體는 新聞通信으로 張學良氏에게 大洋五千萬元을 發行하야 大豆五萬噸을 買占하여 달나고 要望하기로 決議하엿다

解消論과 解消運動批判 (七)
東京 金東秀

組織問題와 解消論

組織上의 自由聯合主義는 그 自身의 分裂와 分裂主義的 要素를 包含하고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新幹會 靑年同盟等等을 解消하고 獨自性의 擴大化에 對한 ××을 要求하게 된다 『勞働者農民小市民及靑年學生等은 新幹會의 旗幟下로!』라는 스로-간밋헤서 新幹會가 大衆的 協同的 自由聯合的 政黨的 組織을 갓게되엿슴으로 그 組織內에 吸收되엿든 他步되 勞働者 農民이 自己의 ××的 ××動을 現在에 그 組織(新幹會)이 抹殺식힘으로서 新幹會의 存在를 否定한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新幹會構成人員의 多大數가 勞働者 農民大衆임에도 不拘하고 勞働者나 農民의 日常生活에 對한 ××에 對하야 또는 勞働者의 經濟的 利益에 對한 條件의 改善 或은 小作農民等의 經濟的 利益에 對한 例等의 ××커녕 一分의 應援도 업섯슴으로 그들의 否定은 妥當하다 이것으로 보아서 新幹會는 또한 組織上의 矛盾을 發見할 수 잇는 것이며 勞働者農民大衆 小作農等을 吸收할 수 업는 것임을 알 수 잇는 것이다 그리나 新幹會의 組織大衆은 勞農者와 農民層을 除한 外에도 少數의 急進的 小뿌르조아와 其他 左翼民族主義者等等을 抱含한 集團이다 그러면 이러한 部隊가 勞働者와 農民의 主體性의 强大化 黨議化를 爲하야 直接的 利益은 위처줄 수 업다 하더라도 間接的 利益을 獲得 ××의 擴大에서 獲取할 수 잇는 集團으로 轉化식힘만한 要素가 지 아니하는가 한니 萬一에 이것이 改良主義的 小뿌르조아지-의 活動과 그들의 利益만을 助長하는 集團이 된다면 當然이 이를 無力化 解消化하여야 할 것이나 勞農大衆의 部分的 政治的 要求에 對한 ××의 補助的 役割을 할 수 잇다면 이러한 組織(新幹會 靑盟等等)의 時間的 有機이 必要하지 아니할가 하는 바이다 그럼으로 勞農大衆으로서는 獨自的 職業組合에 加入(勞農靑年은 兩組合靑年部에)하야 活動하면서 協議的 ××過程에서 新幹會(勿論이 新幹會는 過去의 誤謬를 淸算한 一部의 ××××××××을 抱括한 바) 天道敎 衡平社及宗敎的 諸集團等과 提携할 수 잇지 아니한가 한다

無產階級으로서는 『民族協同戰線의 媒介的 集團인 新幹會를 支持하다!』 『勞農大衆은 新幹會의 旗幟下로!』 란 스로-간을 撤去하는 同時에 『勞働者는 勞働組合으로!』 『農民은 農民組合으로!』 『勞農靑年은 組合靑年部로!』 『勞働婦人은 組合婦人部로!』 『勞働少年은 組合少年部로! 職工場 鑛山 鐵道 農場으로!』 란 스로-간을 提唱하여야 할 것이다

無產階級은 自己組織의 强大化를 爲하야 産業別組合의 再建設을 企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려니와 全民衆의 絶對多數를 占한 農民(貧農만이 아니다)을 自己의 直接的 援軍으로도 結托하여야 하며 ××××、×××要素의 徹底한 大衆의 ××으로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職業的 原則에 準하야 無產階級은 獨自의 ××을 抹殺식히지 아니하는 限에서 ×××× ××××協同××을 展開식혀야 할 것이다

新幹會等等이 組織上의 矛盾을 相殺하야 無產階級의 ××實踐을 抹殺식혀든 것만은 事實이엿스나 此際 組織을 轉回케 하야 (轉化方法은 上述하엿슴) 組織的 ××을 하게 함은 解消를 前提로 하는 時間的 戰術로서 認識하여야 한다

『勞農大衆은 新幹會의 旗幟下로!』란 스로-간을 撤去하면서 『意識的 前衛分子만이』 新幹會其他等에 侵入하야 이를 再轉換하기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解消의 時期尙早를 부르지스며 抉手段을 講할 것이 아니다 一九三一年을 一期로 勞農大衆의 獨自的의 强大化를 爲한 ××이 잇서야 하는 一方 新幹會等等에 吸收되여 잇는 勞農大衆을 産業別組合에 再編成을 爲한 ××이 잇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야 無產階級은 勞農大衆의 日常生活에 對한 部分的 ××을 擴大化 意識化 식힘으로서 (略中) ××을 飛進케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下五行削)

甘肅省回敎軍
漢族十萬虐殺
放火掠奪凌辱暴行
有史以來大慘禍

【北平九日發】 反將戰에 參加키 爲하야 甘肅省方面으로부터 馮玉祥軍이 撤去한 後 回敎徒가 蜂起하야 二年前 馮軍大虐殺의 復讐를 恣行하는 中이라는 것은 只今까지 種種簡單한 報道만 잇서왓는데 八日 同地로부터 北平에 到着한 詳報에 依하면 其慘禍는 實로 有史以來라고 하야 뿐만아니라 馮軍이 一兵도 殘留치 안코 撤退한 後의 일임으로 被害等 回敎徒軍은 마치 無人曠野를 가는 것가티 橫行하야 漢人種의 虐殺, 凌辱, 掠奪, 人質等에 가진 暴行을 다하는 中에 잇다 其回敎徒軍의 首領은 馬廷賢으로 며 그에 和한 者 二萬, 三軍數個師의 軍隊制를 取하고 甘肅南部의 十三縣에 駐屯하야 極히 組織的 規則的으로 惡虐을 繼續하고 잇서 昨年四月以來의 虐殺者 總計 十一萬餘에 達하야 婦女子로에서 간 數가 二萬餘 幼女, 老婆의 別이 업시 完全히 凌辱하얏다고 하며 特히 婦女子에 對한 非行은 不可形言의 者이 잇다 掠奪도 極度에 올으고 同地方에 漢民居留民으로 中國銀十元以上의 家產을 가진 者가 업는 狀態로 生途를 일흔 餓死한 者 三萬人을 超過한다고 한다 馮軍의 撤退한 際 現銀을 持去한 後로 此大慘禍가 來到하얏슴으로 當地漢民은 말이 아니라 한다 右馬廷賢部下에 葬、王의 二軍長으로 우리들의 軍律로는 普通兵士는 百人以上 旅長以上의 頭目은 千人以上을 慘殺하기로 되야 잇다고 豪語하고 잇다 右와 如한 異激한 虐殺의 詳報에 接한 平津地方의 中國人人心은 極度로 憤慨하야 政府當局에 至急對策의 考究를 督勵하고 잇다

對中借款引受
非公式的發表라고
武富通商局長談

【東京電】 米國等의 對中借款引受問題에 對하야 武富外務省通商局長은 語하되 米國에서 『핏트만』氏를 委員長으로 한 外交委員會에서 中國에 五億弗의 借款을 引受하엿다고 新聞에 報道되엿스나 아즉 公電은 업다 新聞報道와 『핏트만』氏의 案과는 相當한 相違가 잇슬 것이나 아즉 公式으로 發表한 것이 아니니 外務省으로도 何等考慮치 아니하엿다

世界週史

內外多艱한 英國

◇ 一九三〇年의 世界政局이 가지가지의 複雜한 問題를 未解決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마지하게 된 만큼 新年劈頭부터 展開되는 諸種의 事實은 吾人의 注目을 쏘으려 마지 안는다 去年歲暮에 一時的 緩和이나마 小康을 보이든 英國의 大炭坑爭議가 새해의 첫날부터 다시 險惡하게 되여 『사우드웰스』의 十六萬坑夫가 一齊히 大盟罷를 斷行하게 된 것은 勞働內閣治下의 英國이 對內的으로 去益多難케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一面 英印圓卓會議가 遲遲不振한 속에서 最近에 이르러서는 印度에 責任內閣을 組織하자는 重要案을 압두고 此를 是認하려는 自由黨及勞働黨側의 意見과 그 最後決定을 留保하자는 保守黨側의 意見이 서로 相違되며 英本國側內部의 意見이 分裂對立됨을 暴露케 되엿스니 이것은 무엇보다도 英國의 植民政策에 重要한 破綻을 意味하는 것이다 英印圓卓會議가 未久에 閉會되리라고는 傳하나 아즉 이러타 할 만한 實勢는 보지 못한 것이 事實이니 一九三一年을 마지하는 英國의 情勢는 內外多難함을 말하게 되는 터이다

獨逸의 內外情勢

◇ 『케룬』 三日發電報를 依하면 獨逸에도 大炭坑爭議가 爆發되야 『루-르』地方의 坑夫六萬餘名은 그여코 罷業을 斷行케 된 同時 婦女子까지도 出動시킨 罷業團側과 此를 警戒中의 警官隊間에 衝突이 頻頻하야 數名의 死傷者가 지내엿슴을 傳한다 四百萬이나 넘는 大失業群을 가진 刻下의 獨逸인 만큼 이러한 爭議는 不可避의 情勢로 推測할 수 잇거니와 對外的으로 佛蘭西와의 國際關係가 갈사록 不穩해가는 獨逸로서는 今年이란 해가 亦是 수월치 안흔 難關임을 집작케 한다 軍縮問題와 條約改訂等의 諸問題를 압두고 獨、佛關係를 中心하야 회도는 不安한 空氣가 그 어느 때 歐洲의 危機를 招來할 것인가 하는 新年劈頭부터 떠드는 英國各新聞紙의 報道와 歐洲政局에 눈에 띄우지 안으者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잇는 情勢로 되엿다

中米에 又復革命亂

◇ 中米와 및 南米의 動亂은 依然가시지 안코 새해의 第二日을 마지하야 『파나마』共和國에 現政府를 顚覆하려는 革命的 暴動이 勃發하야 『아로세메나』政府는 그여코 倒壞된 後 그 代로 軍事執政官 『아리아스』의 政府가 樹立되여 只今까지의 의 方面動亂이 擧皆革命派의 成功으로 된 것을 다시금 想케 하는 바이다

中國民의 對外方針

◇ 新興中國의 一九三一年은 世界의 어느 나라보다도 希望만흔 새해이다 다른 나라들이 不安에 헤매이는 이 새해에 中國만은 如何間 昨年一年으로 그 紛爭을 一時的이나마 淸算하고 新年劈頭부터는 對外方針을 確立하야 國權伸長에 一層努力하는 氣色이 顯著히 보인다 一日부터 이미 聲明해온 釐金의 撤廢를 斷行하얏슴은 勿論 지난 六日 國民政府에서는 第四次全體會議를 通過한 新年의 對外方針을 討議한 結果 一、各國駐屯軍隊의 完全撤退 二、治外法權撤廢에 依한 法權의 自由及獨立의 獲得 三、漢口、天津兩地에 잇서 殘餘各國租界를 回收할 것 等의 三大項을 決議한 後 五月五日의 國民會議 召集時까지 右에 對한 對外宣言을 發表하야 [illegible]지 一方的 實行을 斷行키로 決定하얏다 한 것은 어디ᄭᆞ지 보든지 國民政府의 威信 밋 全中國의 將來를 爲하야 그 實行에 적지 안흔 企待를 갓게 하는 바이다 王外交部長의 北上說과 蔣介石의 北上說外지 傳하야 國民政府와 奉天側과의 關係를 一層圓滿케 하려는 努力이 보이는 對外的 活動과 아울러 意味깁흔 일이라고 보인다 (一月十五日午後一時記)

失業者의 求職示威
米國各處에 蜂起
◇…繁榮으로부터 飢餓에…◇

【紐育八日發】 米國에 잇서서의 失業者의 求職示威運動은 最近 又復猛烈한 氣勢로 各地에서 蜂起되엿다 七日正午 뉴-아-크의 市會議事堂에 共產黨員에 引率된 男女六百의 失業者가 몰려가서 警官隊와 大衝突을 演出하야 共產黨員中에 多數의 負傷者를 내고 男子七人 女子五人이 逮捕되얏다 又五日夜 『클리-브렌드』에서는 千五百人의 失業者가 市會議事堂에 押하얏는데 市參事會가 이를 拒絶한즉 失業群은 直時附近의 『레스토랑』을 襲擊하야 料理를 실컷 허먹고 『돈은 市役所로부터 바더라!』 하고 부르지즈며 撤去하얏다 同日 『오하이오』州 『영스타운』에서는 一千의 失業者가 開會中의 市參事會를 襲擊하야 交通機關은 一時 그들의 手中에 도라갓섯다 『페실바니아』州 어떤 洞里에서는 一千以上의 勞働者가 市會로 向하야 饑餓行軍을 하얏다 更히 一月三日에는 五百人의 武裝한 農民이 『우리들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아-칸소-』州 『잉글랜드』의 商業區를 行進하야 萬若 要求를 들어주지 안는다면 掠奪을 敢行하겟다는 氣勢를 올렷다 그들의 말하는 바로는 此地方의 農家의 一日最小限度의 生活費는 二弗七十五仙을 要하는데 이제 그들의 妻子는 飢餓로 死線을 彷徨하고 잇다는 것이다 紐育의 共產黨本部에서는 七日夜와 八日夜를 期하야 市中各處에서 失業者의 一大飢餓行進을 擧行할 指令을 發하얏슴으로 警察當局에서는 緊張한 警戒를 하고 잇다

幣原首相代理 近衛公과 會見
貴院議長就任을 要求

【東京電】 幣原首相代理는 九日午後五時三十分 外相官邸에서 近衛文麿公과 會見하고 貴族院議長就任에 對하야 正式交涉을 하고 其承認을 求하얏는데 後當面의 外交問題에 對하야도 種種懇談을 하고 午後六時二十分 會見을 맛치엿다

富田幹事長 江木鐵相會見

【東京電】 幣原首相代理가 正式으로 休會後 議會에 臨하기로 決定하얏슴으로 來十四、五日頃에 出身閣僚及與黨院外役員을 招待하야 聯合懇親會를 開할 터에 對하야 富田幹事長은 九日閣議後 江木鐵相과 協議하얏는데 江木鐵相으로부터 幣原首相代理에게 此旨를 依賴하기로 되얏다

資本家側 懇談會
內相의 周旋으로

【東京電】 勞働組合法案에 關하야 安達內相은 資本家側의 懇談會를 企圖하야 資本家側의 出席拒絶로 不成功에 이르고 말엇는데 其後 內相은 鄕誠之助男과 會見한 結果 鄕男을 爲始하야 團, 木村兩氏等의 人選에 依하야 資本家側懇談會를 開키로 하야 十七日 左의 諸氏를 招待하야 內相官邸에서 開會하기로 決定하고 十日 各其案內狀을 發送하얏다

(京濱側)團琢磨, 鄕誠之助, 木村久壽彌太, 藤原銀次郎, 井上敬次郎, 谷口房藏, 近藤豊二, 湯淺武孫, 渡邊鐵藏, 膳桂之助, (近畿側)稻畑勝太郎, 片岡安, 小畑源之助, 高柳松一郎, 竹崎瑞夫 (名古屋側)靑木謙太郎 그리고 政府側으로부터는 安達內相을 爲始하야 齊藤、潮兩內務次官, 一宮參與官, 吉田社會局長官, 大塚警保局長等이 出席할 作定이다 今回의 會合에 잇서서는 資本家側으로부터 組合法反對의 强硬意見이 提出될 것은 明白한 것으로 內相은 이에 對하야 如何한 言質을 與할가는 자못 注目되어 잇는 바 內相은 此結果에 依하야는 다시 勞働者側 中立側과의 懇談會라도 開催할 意思를 갓고 잇는 고 입으로 休會後 今議會提出을 遲延시키라는 口實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고 種種의 臆測이 떠돌아 단이다

國際聯盟 阿片諮問委員會

【제네바九日發】 國際聯盟阿片諮問委員會 第十四回會議는 葡萄牙의 『바스、컨셀로스』氏를 議長으로 九日開會하얏다

濱口首相 登院할 決心
安達內相談

【東京電】 安達內相은 濱口首相과 會見後 말하기를 濱口首相의 容態는 益益良好하야 안커서 五十分동안이나 말하얏다 十五六日頃 退院하야 政務를 보도록 官邸에서 休養하겟고 休會後 若干의 時日만 經하면 登院할 決心이다

八面峯

○中國甘肅省에서는 馮玉祥軍이 撤退한 後로 十萬의 漢族이 回敎徒軍에게 虐殺되얏다

○地上의 修羅地獄은 甘肅省에 가서 正히 차저보겟군!

○그나 그뿐인가? 甘肅省과 陝西省에서 飢餓로 죽은 사람만 二百萬을 超過、그리고 瀕死에 處한 者가 四百萬!

○人類의 한 모퉁이는 이러케 悽慘하단 말인가? 都市의 뱌쓰와 蠢聲은、耽求하는 者여! 對岸의 火로만 보지 말라!

○米國서는 失業者의 救職示威가 各處에서 蜂起! 『빵을 달라!』 『우리의 生活을 保障해 달라!』고、부르지저

○黃金나라의 돈들도、한쪽에만 偏在해 잇다는 消息!

參茸 唐草乾材都散賣
貼藥 末藥調製專門
藥은 朝鮮商會
肝氣驚風 영아환
百種根治 腫仙膏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本社新年事業
『文字普及班』開設
本社支局員總出動·한글原本을 無料로 配布
(開設時期는 舊曆正初)
『書堂先生講習』開設
한글綴字法과 農事常識
(時期는 放學期를 利用)
『農村朝鮮』發行
初級讀者의 好伴侶·農村常識의 好讀物
(每年四季發行 二月中創刊號發行)
『小冊子』刊行
科學·趣味·實用等常識의 寶筏
(年中隨時刊行實費提供)
朝鮮日報社

米國츄잉껌고로덕쓰會社製品
페파민트
스피어민트 三種
林檎味
(各地食料品店菓子店에 잇습니다)

口中淸涼菓界의 覇王을 紹介함니다!

本『츄잉껌』은 輸入日淺하오나 愛用諸家로서 米國『츄잉껌』中에는 가장 優良타는 評判이 嘖嘖하와 모든 執務家、運動家、登山家、旅行家들이 愛用함니다 常用하면 口臭업고 口中이 淸潔하며 消化잘되고 心身이 爽快함니다

市內注文은 電本三七八三番을 利用하면 即時配達하고 地方注文은 代金引換에 運賃은 本商會負擔으로 迅速發送함니다

朝鮮總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五丁目一一五
世富蘭偲醫用品商會

仁取問題運命決定日

入場株主身體檢索 壇上에도警官列席

『살긔등등한가운데 쌍방주주입장 장내외는백여정사복경관이경계』

仁取株主總會續開

인천취인소주주총회계속회는예정과 가티 지난십칠일 경성공회당에서개최되엿는데인천취인소의운명을 결정하는최후의회합이니만큼 오백여인천측주주와이백여경성측주주는살긔등등한가운데 입장하고백여명의정사복경관은 회장내외를철통가티경계하며입장자의신체검사를엄중히하야 장내에는물샐틈업시한바회장내외의긔분은극도로긴장하얏스나 단상에는 경관과각중역이열석하야 극도로소란한중에열시오십분부터 개회되엿다

가운데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황정의장은 휴회를선언하엿는데 때는 오후한시엇다

議案

一、仁川米豆取引所와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市場과의間에締結한合併假契約承認의件

二、商法第四十四條의三의規定에依한設立委員選擧의件

三、解散費用處分方法決定에關한件

四、合併實行에關한一切事項을取締役에一任의件

(河野竹之助)에게로신청중이나 라진하여왓다고한다

開會劈頭에 質問이續出

의사진행에또한일파란 荒井議長休會宣言

이날오전열시오십분황정(荒井)인취사장으로부터개회를선언한후 아래와가튼 사개의안을일괄하야 진행하자는 선언에대하야인천측의길천(吉川)씨의게임차발언으로 의사는 축조진행하기를 바라며 또인천측의 의론을들어달나는 부탁이 잇슨다음에인천하야(河野)씨로부터금일총회는 인천부민의 막대한 관계가잇는이만큼 상당한 질문시간을허락하여주기나는 부탁이 또한잇섯고 인천산야(彬野)씨는인취합병은 다년간 현안으로 인천부민의절대반대일뿐만아니라인천의긔득권(旣得權)으로보든지지역(地域)으로보든지 합병은 절대불가하다는의견을 진술하고 다년간합병운동에 막대한비용이 업지안헛슨즉 그비용의 내용을설명하여달나는등 질문이 잇섯스며그다음에는인천측정정(井)(淺)씨의질문으로 경인취합병찬경에 대하야는 상법(商法)규정제일백오십삼조 제삼항에 의하야감사역으로서의 리해관계에 대한 의견이 업지안켓스즉 감사역의찬동에 대한리유를 설명하여달라는질문이 잇섯는데 감사역리병학(李炳學)씨는요령부득의말로다만 취체역의 계창에대하야찬동하엿슬뿐이라고 답변을하야장내는 익장우승반이 되어확실한답변을 듯지못하고 소란한

場內極騷亂中 議事繼續進行

단상의의장발언불철저 監査役一時佇立

오후한시십분 황정의장이 다시 개회를 선언하자 좌측의 중정(中井)씨는 상법에 시워잇는것이라고 법률책을펴들고 긔어히감사역(監査役)의 의견을 듯는다고 고집하매감사역리병학(李炳學)씨는단상에서 엇절줄을모르다가『그러면합병에찬성한다』고 하매군중은 더욱떠들며 소란한가운데 의장발언은 장내에철저치못하고 질문하는사람의 말도알수업시되어 장내는 크게소란하야 잇스나 의장은그대로 의사를진행케하엿다(오후두시긔)

仁川府民等 激電發送

일흔아침부터 오백여명의 주주들이취 총회에보낸 이천칠만부민은 총회결과의 소식을들으라 고초조한 가운데 아무조록인천측은 승리하라는 격려전보를인천반대주주 동맹장 하야죽지조

◇運命決定日의仁取株主總會◇

五百株主入城 上仁川驛混雜

인천부민만세성리출발 總會當日의壯觀

인천인민의 회합으로 반대의운동을 계속하는한편으로 수차총독부당국을 방문하고인취 계속 총회를 신취소령이 발표되기까지 연긔하여달라는 진정을하엿스나 상부그대로의 개최되는 총회는만치 인천부민의 갈망며 다지못난 인천측반대주주 오백여명은 할벌시 십일일오전여덟시사십분 상인천역(上仁川驛)발렬차로 인천을떠나 재차경성공회당에 열리는 총회출석의 길을보게되엇다 예마침 십육년 이래의 취음지는 혹한임에도불구하고 일흔아츰부터 오백여주주의 출동은본논당 별의 승리를부탁하려 상、천여두 너어지 답지한시민은 실로대혼잡을 일우어 기생까지 총출동을하야 덕일총회에 출석하는 오백여주주를 만세삼창으로써경칭을보내엇다

關釜連絡船 無事入港

【釜山支局電話】 십삼일이래의 대풍랑으로이하야 하관을떠난 관부연락선은 이십삼시간 사십분만인 십일일아츰에 부산에입항하엿고 경어선은배 다섯척이 풍랑중에 거처불명이 되엇슴으로 구일부터 발동과선이 매수색중이엇스며 부산시내에도 전차가불통하는데 인명의 손해는업다한다

新幹本部委員 各道支會巡廻

신간운동(新幹運動)은에위차고도는 근일의풍운은 경향을통하야 무게다단하던바 금번신간회본부(新幹會本部)에서는그진용을정돈하고력량의통일을괴하기위하야 아래와가티 본부간부제씨가각도지회를순회(巡廻)하라다한다

咸鏡南北道 徐廷禧氏

平安南北道 李用燕氏

全羅南北道 李恒發氏

慶尙南北道 韓炳洛氏

忠淸南北道 楊秦根氏

그중리항발(李恒發)씨는작야최종렬차로 전남방면으로 향하야출발하엿스며가 라저씨도 금명간 출발하라라한다

告訴狀紛失事件과 第三者의暗中策動

金連山、任世準外또다른一派 連鎖劇的黃金爭奪戰

전북정읍(井邑)의 광상과수강련산(金蓮山)을 싸고도는련쇄극적(連鎖劇的)의황금의쟁탈전과 긔괴하기짝이업는 검사국(檢事局)내의고소장분실사건은 의운중첩한가운데세인의호긔심을더욱고조케하는바가잇다즉―복심법원이호법정(覆審法院二號法廷)에나타난두괴인은누구이며?검사국에서분실된고소장은 어대로날러가고 또엇더케날나갓스며?그리면에서책동난일파는어떠한사람들인가?자못흥미를고조케고잇는이등그외수만흔『썩로커』―들이 등단하야 가진연극을연출하고잇는중본사건을 싸고도는 물은여러파로대립하고잇스니 고소인측김련산(金蓮山)파와피고소인측임세준(任世準)파와제삼자(第三者)인포전(浦田)송전(松田)파로 분립한중에서 이번사건의책동은 제삼파인포전변호사파가 한사실이천천명백하게되어 이제수수꺽기와가튼고소장분실사건은해결로한거름을 갓가히가고 잇다

最初에着手한 辯護士兩人

비용은각각수천원식써 第三派의松田과浦田

고독한 김련산(金蓮山)의 백만유산으로 임씨(任氏)의 가정에 골육전(骨肉戰)이전개되고범적수속을취하야 본사건이 세상에나타나게됨에 이사건을 처음으로 변호사에소개하기는 리찬경(李燦卿)이라는『썩로카』가시내포전(浦田) 변호사에 사건의내용을 소개하고 사건해결에착수하기로하야 포전(浦田)변호사는 그의사무원 조주석(趙周錫)을 압세우고 정읍(井邑)을 왕내(往來)하면서 사건조사에착수하야 려비기타비용으로 약삼천원을 허비한후 사건의해결은 엇지못하고 손해만보고마랏스며 또그외에 이사건에손을내인 일파가 잇스니 송전(松田)이라는 사람이 산구(山口)변호사의 지휘하에서 본사건의해결에 착수하기위하야 비용약이천원을 허비하고 마럿다한다

과지방법원 사이어던데에서 임삼준(任三準)을 보고 고소취하서(取下書)와 변호사해임계(解任屆)에날인(捺印)을강청하든사람이 포전(浦田) 변호사사무원인문상주(文相周)로 추측된다하며 또지난십이월 이십사일에고소인측의 변호사인 리창휘(李昌輝)씨사랑에 나타나서 문제의고소장은 피고소인(被告訴人)에게잇스니 화해(和解)하자든사람이 본사건을 처음으로소개하든 리찬경(李燦卿)이라하며 또고소장이제출되든직후 십팔일아츰에 전긔변호사포전(浦田)변호사가 서긔조××(趙××)을데동하고 문제되는현지인 전북정읍(井邑)으로 급거출장하엿다는사실이 판명하며 또한편으로는 검사국에 제출한소장에 본사건은『녹하 종로경찰서에서조사중』이라는문구가 잇다는리유로 사건을 접수한 서긔(書記)가검사(檢事)의지휘도업시 즉시종로서로 반환하엿다는불법 행동이잇다하고 다시 종로서에서는 그고소장을 검사국으로보내엇다 하며그후에 소장은감쪽가티 업서젓다는것이 모든사실을 종합하야 이것은만드시 본사건을착수하랴하다가 손해를 보고만 포전(浦田)변호사 일파가일면으로 고소장 취하운동을하야 화해에 힘쓰고다시정읍으로 급행하야 손해본 것과사건의위임을회복하기에힘쓴책동이것으로 검사국서긔(檢事局書記)와모경부(警部)와변호사『썩로카』간에다각적(多角的) 연극이연출된것이라고추측한다한다

任世準은 井邑에

피고소인측배임무도(背任無道)한임세준(任世準)과임찬호(任贊鎬)부자는어대인는가임세준은그백만재산을 횡령한후 경향(京鄕)으로왕래하면서여러가지 협잡을 거듭하다가 주소를숨기고도라단이든중 지금은정읍(井邑)에잇다는것이발각되엇다는데변호사의 발견계를 제출하는 동시에 즉시경성으로 소환취조 될것이라하며 동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시내심상붕(沈相鵬)변호사이라한다

時計完全修理 奇麗히신속히 京城本町 村木時計店修理部 電話本局

◇만긔출옥한함북도련맹원들

前後事實分明 第三派策動?

중추원가는길에나타난 怪人은浦田의書記

그런데 문제의고소장(告訴狀)은 지난십일월 십오일에 서류우편(書留郵便)으로 제출하자 불과이틀만인 이십칠일 오후에당시고소인이 거주하든운니동(雲泥洞)에자동차로나타나서 종로경찰서(鐘路署)로 (검사국으로 가자하엿다는것은 종로서로 가자는말을 김련산이 잘못들은것) 가자든사람과 또중추원(中樞院)

『任世準居處判明 事件은不遠解決』

辯護士李昌輝氏談

『본사건에대하야는 고소인측의위임을 마타가지고잇는 관계상적임잇는말을 할수잇습니다 이번고소장 분실사건의 경로도 모르는것만아니라 절대로개구(開口)하지안켓습니다마는 피고소인 임세준(任世準)의주소를 알엇슴으로 내일에는 관계서에출처하러이며 또검사국에서도 피고소인과 기타관계자등을취조하면 머지아니하야 사건은 판명될것입니다 그리고본소송(本訴訟)은 형사(刑事)에는 말하지안켓스나 민사(民事)에는 소송이성립되어 번적해결을 볼것입니다』운운

常用漢字數를制限 橫書字體까지考案

문법、철자법、외국음긔록법등 ◇ㅡ朝鮮語學會의五大事業

세재에 작『한글』『우리말한글』의 완취을과하고정진하고잇는조선어학자 제씨의연구처진단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에서는지나십일일오후네시부터 시내수표정조선교육협회관(朝鮮敎育協會館)에서간사장장지영(張志暎)씨 사회로정긔총회(定期總會)를열고간사(幹事)를개선한결과 리극로(李克魯) 최현배(崔鉉培) 장지영(張志暎) 삼씨가재임(再任)되엇고회명을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라고개정하기로하엿스며 일천구백삼십일년도의사업으로

一、文法整理

二、綴字法整理

三、常用漢字數制限

四、外國音對照記法과外國固有名詞標準記法決定

五、『한글』橫書字體法決定

의오대사업을 규정하고 금년내완성하도록 매진할것을 결의한후그진행방침(進行方針)에대하야는간사회(幹事會)에일임하기로하고폐회하엿다한다

京支委員全部에 停權을處分

위원삼십일명에게정권 新幹本部에서決定

신간회경성지회(新幹京支)에서신간회본부 신임중앙집행위원회(新任中委會)를부인하고반대하는 태도를 천명하자이래일반은 이에대하야 본부가 엇더한태도로 나올가하야 사건의진행을자못주목해오던바 동본부에서는구일오후세시에종로(鐘路)이정목본부회관에서제이십일회중앙상무집행위원회(第二十一回中央常務執行委員會)를 위원장김병로(金炳魯)씨의 사회로열고 경성지회(京支)의행동에관한본부조사부(調査部)의보고와중앙상무검사위원회(中央常務檢査委員會)의보고와 의견을들은후장시간에궁하야 토의한결과 아래와가튼 리유로 경성지회를처분하기로결의하고 오후여섯시경에산회하엿다한다

新任中央執行委員會의決議와行動은 京城支會執行委員會를否認하는理由와事實을把握한것이아니라口實을揑造한否認이며 內的으로 會의紀律을紊亂케하는行爲와外的으로 會의體面을汚損하는言論을 敢히하엿슴은 團體의統制와 大衆의聽聞으로보아 到底히容恕하지못할罪過인것이다 本部에서는隱忍自重한바이잇섯스나 同支會로서는 改悛의態度를보이지아니하고 도로혀罪過를더욱重大化함에歸하는것이 不得已會의規約에準하여 斷然히處分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支會全體의行動이안임으로 그

今朝의京城 零下廿二度五

경성의최한긔록보다 僅六分의差異

구일밤부터 갑작이혹독한 치위를마즌 경성지방은 십일일아츰에 급하내리어 령하 이십일도구분을보이엇는데 십이일 아츰에는 다시더한긔가심하야 령하이십이도오분을보이엇다 그런데 경성측후소의 관측에 의하건대 경성에잇서서는 소화이년 십이월 삼십일일의 령하이십삼도일분이 최한긔록(最寒記錄)이엇음으로 이보다저우 륙분의 차이가잇슬뿐인데 이혹독한 치위는 당분간계속되리라고 관측된다한다

『停權된委員의 決議는無效』

本部委員長談

본부에서정권 처분을하자 뒤를니어경성지회에서는본부간부로서경성지회에 소속한몃사람을 제명(除名)혹은정권처분(停權處分)에부친데대하야 본부위원장(委員長)김병로(金炳魯)씨는아래와가티말한다

경지(京支)는 벌서 오래전부터 그행동이매우과오(過誤)를 범한점이 만헛스나 본부로서는오직 관대한태도로 그개준(改悛)만기다리고잇섯는데날이갈사록 그런기미는 보이지안코 오히려점점 더큰오류를

펜셋트

▲조선어연구회에서는동회의이름을 조선어학회라고고치고▲금년중으로문법정리철자법정리한자제한외국어음의표준 횡서자체 규정등의 오대사업을완성하기로결정하엿다고▲하기로 결정한것이 하루밧비 실현되기를 고대……▲인취 본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회에서는▲정사복경관이 입장자의 몸을뒤지는데 칠일일의총회에서는▲압수하고서야 입장을허락하나▲불질을비려가 잇단날이가……이것은병우심해……

北滿의酷寒 零下四十度

歐亞列車遲延

【하르빈電】 근일에이르러 북만주(北滿洲)지방은 혹한이 닥쳐 령하사십도에 달하야 십여년래로 처음보는혹한임으로써백리아철도(西伯利亞鐵道)는눈관불통상태에 싸지어 구아(歐亞)련락렬차는사오십시간이나연착하고잇는중이라한다

新幹京支委員決議 六氏에停權 兩氏는除名

신간회본부위원을처분

신간회경성지회(新幹會京城支會)에서 신간회중앙간부(新幹會中央幹部)를부인하고 각지회에 통의문(通議文)을발송한이외에 지난구일밤에는 동회관내에서림시집행위원회를열고 대중앙문제(對中央問題)의그동안경과를 보고한후 다음과가튼 결의를하엿다한다

一、會員處分의件

本支會의對中央決議에不服從한會員에對하야는無期停權에處하기로하되더욱이本會指導精神에違反되는言動을行한證左가顯然한者는除名키로함

金炳魯 李恒發(以上除名)

徐廷禧 楊秦根 朴明煥 洪鳳裕 兪錫泰 成樂薰(以上無期停權)

二、通議文發送에關한件

通議文은三日以內로發送하되中央整理善後策까지添付發送키로함

『否認하는中央 알배가아니다』

京支委員長談

삼십여명 집행위원(執行委員)전부가 본부로부터 일시에정권처분을 당한경성지회의 위원장로實際會員全體에 밋치는것이아니고 同支會執行委員으로 在任한三十一人에限하야 不定期會員權停止處分을行함 (委員長)리종린(李鍾麟)씨는본부의 금번처치에대하야 아래와가티말한다

경지(京支)에서는처음부터현신임중앙간부(現新任中央幹部)를부인하는태도를시종여일하게 취하여왓스니까 지금에와서우리가부인하는신중앙간부가엇더한처분을하든지 그것은우리가알배더고하는바도 아니고 아모러케도 생각지안습니다운운

咸北道聯事件 十名滿期出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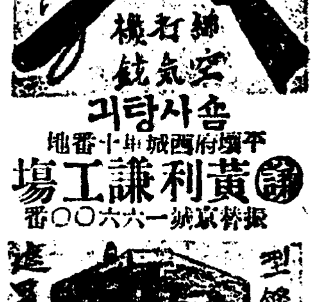
만긔되어금일아츰출감 鐵窓에서四年呻吟

함북도련맹(咸北道聯盟)사건으로사년전에검거되어 청진(淸津)형무소에서단식동맹(斷食同盟) 예심긔한(豫審期限)단축요구등으로도 세상을 놀나게하고지난여름 청진에서 일심판결을맛고 다시복심에 공소하야경성복심에서 지난팔월 십오일에 공판이개정되어황태성(黃泰成)이하십사인이 각각제형을 바덧든바 금십일일오전 좌긔열명은만긔출옥되엿다한다(사진은만긔출옥한)

李龍國 金昌一 韓日仁 方東七 金東水 安時雄 徐誠根 黃泰成 崔寅桓 金明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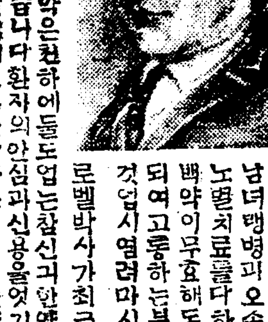
귀부인화장에변치안는 박가분
京城蓮池洞二七〇 朴家粉製造本舖

印材
印章店印椊印
諸印章附屬品 一式郵書商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八六
中島印材店
電話本局二四三三番 振替京城五三三三番

新案特許

空氣銃 獵打機
긔당사총
平壤府西城里十番地
黃利謙工場
振替京城一六六〇〇番

스토ㅡ부의 種類를不問 溫突에도最適品
總督府保證付
鳳山炭
電話本局三〇二一 三三六番

링질 대하증 근치 절대보증

만일무효면돈을 도로드립니다
유명한독일구로벨박사 가발명햇습니다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六
直營人蔘舖 總發賣元 神聖堂大藥房
振替京城四九五〇番 電話長光三三四番

金組預金係員이 千五百圓을橫領逃走
평양부선교리금융조합에서 警察은犯人搜索中

【平壤】평양부선교리금융조합(新船里金融組合)에서는 장부정리를하든중 작년십이월일십칠일부터금월십칠일까지의사이에예금 일천오백원이 간곳이없어진. 이 탈이되여 계원들은때마침 조사한결과 그것은동예금계에근무중이든선양군진양리(眞香里)륙번지림건식(林健植)(二○)의 소위가아닌가하는혐의가농후하여 그뒤를 찾는중이엇든바 그는 벌서 일이탄로 날것을짐작하고 수일전에 달어낫다는데 미거일부으로간곳하다 하여 평양경찰서에서는 그방면으로엄탐중이라한다

新幹鎭南浦支會 定期大會開催 이십삼일에

신간회진 포지회(新幹會鎭南浦支會)에서는 지난칠일오후팔시부터 비석리(碑石里)동회관내에서위원장 홍긔주(洪箕疇)씨의사회로 각사항을 협의한 고농아십시에 폐회하엿다 한나

◇決議事項

一、定期大會開催의件 日時 一月二十三日午後七時 場所 碑石里엡윗靑年會館內 準備委員 洪箕疇 朱利鉉 金明貞玉 安德俊 金鼓麟 宇 安錫仲 李正

一、會館問題의件

一、無期制限批判의件 (次期執行委員會外지保留)

一、借家人同盟組織의件 李正 金貞玉等發起人募集員 十人을選出하야 來十七日碑石里엡윗靑年會館에서同盟起會를開催키로하다

失業救濟資金 各道에分配
오천칠백칠십여만원을 土木工事費로配當

가속도(加速度)로늘어가는조선의 농촌의 빈민(貧民)과 수자상에나타난궁민(窮民)들만이라도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 방향에더하야 총독부당국에서는 비상히고심하든일바 그대책을 강구하든중의마즌에 일본대장성(大藏省)의양해를 어더 소위궁민구제사업비(窮民救濟事業費)로만 삼년간 계속사업(三年間繼續事業) 계획알에 총경비 오천칠백칠십만원의 예산을어더 이를 각도에로토목공사비(土木工事費)로 분배하게되엿는바그도 별을보건

▲京畿道六百三十一萬圓 ▲忠北百十二萬一千九百圓 ▲忠南六百九十七萬圓 ▲全北二百九十一萬圓 ▲全南二百九十八萬九千圓 ▲慶北六百八萬五千八百圓 ▲慶南六百六十七萬圓 ▲黃海一百七十八萬八千圓 ▲平南三百萬五千六百圓 ▲平北二百八十八萬六千圓 ▲江原三百十八萬圓 ▲咸南七百四十二萬圓 ▲咸北三百三十二萬八千圓 ◇合計五千七百七十七萬六千圓

으로 이를각도에 삼년동안을두고 궁민사업을 구제한다할지라도 송엽(松葉)으로물색리는격이나아닐가한다

無產兒童敎育의 靑山學院曙光
학술강습소로인가될터、 仁川府當局의方針

【仁川】인천무사정(寺町)오십육번지 청산학원(靑山學院)은유지 황년희 김현태(金顯泰)씨의경영으로 무산아동 팔십여명을 수용하야 이래수개성상을 그날그날의 열성을다하야 육영(育英)사업에 하여옴으로 빈한한가정에 비상한비익을주며 딸아서일반의 찬평이자자하든바 지난달중순에 전긔검씨는 한거름더 나아가서 그학원을 사립학술강습소로 승격을시키기위하야 인천부당국에 학술강습소의 인가신청을 하엿는데 부당국으로서도 그학원의성적이 양호한만치 십분인정하고 불원간에 인가의 지령이잇슬모양이라한다

三越本店會計員 六層서跳下自殺

동경일본교실정(東京日本橋室町)에잇는삼월본점(三越本店) 회계과 출납계에 근무하는 소판수○(小坂秀○)(○)은지난사일오후오시반경에 상점문을닷고 사람이업는틈을타서본관 남쪽의옥중장문으로부터 뛰여나려이웃집사이에잇는길에떠러저서두개골(頭蓋骨)과늑골(肋骨)이분쇄되여 즉사하엿슴으로 시체는 소관경찰서원이 출장검시한후일본교병원(日本橋病院)에 메여갓다. 매살에서는국도로 경매하야 자살한사실을 알게된 범에쫏처나 자살한소판은 월급 원신원을밧고 정직하게 근무하엿섯스나 작년하반기 결산할에 예현금오천륙백원의쓴곳이불명하엿섯는데 이것을 극히비관하야 최근에 신경쇠약의 긔미가잇섯다한다

金農李晟煥氏 警務局서召喚

총독부경무국에서는지난팔일에 북간도조선농민회(朝鮮農民會)간부 리성환(李晟煥)씨를 불러서 불온문서에 대한 편중경찰, 인인디청화(李)씨를 불러서두 그편중과선전에 불관법에 의한것과 신문지법에의한 것을 흔들치말라고경고하엿다한다

豆滿江을 두번건너 移住同胞歸還
만주와간도에못살어 쓸쓸한故土로차저

조선내지에서 살길이업서 남부녀대로간도(間島)를차저두만강(豆滿江)을건너류리하얏든이주동포(移住同胞)들은최근공산당과방화(放火)살육들비롯과외색공포병(赤色恐怖病)으로인하야중국관헌의 무리검거 또는축등으로도 살수업서 최근에는강안(江岸)을 유하야 조선에돌아오는사람이적지안타고한다

平安南道 評議會召集 오는십칠일에

【平壤】평남도소화륙년도예산안은 대략편성이 되엿슴으로 동부(東部)내무부장이 일간 총독부에나가 신규사업의 승인을맛는중에잇다 신규사업으로 실업구제(失業救濟)의토목사업으로 진남포어항(鎭南浦漁港)축조 평양상업학교신설 직업소개소(職業紹介所) 며부연장 녀축산등이잇서 낙토도의복안대로승인이 잇슬모양이라는데 나아서 도평의회는 삼월초부터 달부간도청회의실에서열게될터이라한다

作年中傳染病 府內만二千名

경긔도 작년말현재 전염병발생상황보고에 의하면 경성부내의 전염병은 【▲赤痢四百七 ▲腸窒扶斯五百二 ▲파라티브스百三〇 ▲發疹窒扶斯 ▲猩紅熱 ▲지후테리아二三八】등이 주요한것이오 이밧게두창(痘瘡)등을 합하야 전염병총 발생수는 일천이백여명이라하며 경긔도전체의 총발생수는 삼천삼백칠십여명이엿다고한다

빗에졸리다못해 闇夜撤家逃走
밤중에몰래도망해버려 安溪一帶의農村相

【安溪】미증유의대풍작과미가참락으로 안계(安溪)일대의 수천빈농은 벌서부터 량식에 떠해지고 그우에 채권자의청화가 독촉은 참으로견듸기 어려움으로 소극적극단의행동은 도주밧게 업나하야 수일전 안계면토매동김모(安溪面土梅洞金某)의가족은 야간에 아모 몰내 어데로인지 철가하야 도주하여 버렷다는데 김보원만아니라 압흐로이와가튼현상은 더욱더욱 증가될모양이라한다

尙州郡下에疑獄發生 金融組合돈數萬圓을
금융조합리사와서긔와긔타여럿이소비해 關係者續續檢擧

【尙州】경북상주경찰서(尙州署)에서는지난이십일일에 돌연히활동을개시하야 전상주금융조합서긔(尙州金融組合書記) 박희서(朴熙善)씨를구속취조하는동시에 금월초순에는 상주면부장(尙州面副長) 박정렬(朴正烈)씨를구금하고계속하야 전일원상주 금융조합 리사이오 현재경산금융조합(慶山金組)리사지무반작(志茂作)을구인하야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일방면협의원(議員)심윤덕(沈潤德)씨외다수인사를소환심문한일도잇다는바 사건의 내용은당국에서 절대발표치 안음으로보도할 자유가업스나 전긔지무리사와 박서긔는 결탁하야오륙년전부터 그조합자금을 부당대부(不當貸付)혹은유용한 금액이 실로수만원에 달한것이 발각되여도 련합회에서 고발한것인듯하다하며 박보장은 동조합의감사(監査)혹은평의원(評議員)의요직에 잇섯슴으로 관련된사건인듯하다하며 이들은모다 상주의행정(行政)금융(金融)긔관의요직에 잇든사람들로지방에서 상당한 신망을가젓든터이라 일반은 사건의귀결이 장차여하히 될는지 일대의주목사건으로크게주목하는중이라한다

咸鏡線列車 轉覆未遂犯被逮
철길에다큰못을박어노코 산에올러가전복을기다려

【元山】지난삼일오전열한시경에 함경선덕원역(咸鏡線德源驛)과문평역(文坪驛)사이 선로련결한곳에 두곳에나 큰못을박어 렬차의전복을 도모하엿스나 일하든공부들에게 발견되야 렬차는부사히 통과하고 부근각경찰서에서는 범인수색에 대활동을 한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된바 어니와 범인세명은 지난칠일에 도되여 원산서원의손에 체포되야 목하엄중한취조를밧고 잇다는데 그들은덕원군 부내면반상리(德源郡府內面盤上里) 리청룡 리정귀(李正龜)장창서로서 엄마전에 전긔리청룡의부친이 철길에서 주어온철도용큰못(鐵道用大釘)을리청룡이가 집어내여가지고 리정귀장창서와 공모한후 그와가튼범행을하고 부근방덕산(德山)에 올려가서 렬차의전복되는 광경을보고자 하엿스나 목적을달하지못하얏다는바 범인들은 간일건서류와함께 함흥지방법원 원산검사분국(咸興地方法院元山檢事分局)으로 송치되리라한다

裡里火災 一棟四戶全燒 손해약천원

【裡里】지난십일오전다섯시경에 시버본정(本町)통에서한약종상(漢藥種商)하는 김종진의집으로부터 불이널어낫다는바 때마츰불리가 심하야 불을 끄지도못하야 그만 그이웃리상부(李相文)의 누호가 몽여젓시엿지. 전소되얏는데 손해는 약일천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김종진의 비인칸방에서 시작되엿다는바 그뒤비인 칸방이엇서 거지가자다가 불을낸 것이나아니하엿나하는 혐도 잇다한다

安州靑年同盟 代表大會 지난사일에

【安州】평남안주성내(安州城內)에위치를둔 청년동맹(靑年同盟)에서는지난사일오후두시에 동회관내에서 위원장리종수(李鍾洙)씨의사회로 개회하고 림시집행부선거에드러가의장 리종수 부의장 리찬흥(李燦興) 서긔에 오춘산(吳春山)、김정련(金精鍊)제씨가피선된후 래빈중으로 신간안주지회집행위원 박윤수(朴允秀)씨의 간단한 축사가잇슨후 회무를일사천리지세로 진행하고 동오후오시폐회하얏다는바당일토의사항및피임된임원은다음과갓다고한다

◇討議案
一、機關變更의件
一、靑年同盟本質究明의件
一、勞働農民組合擴大强化의件
一、靑總委員不信任의件
一、遊說隊組織의件(禁止)
一、其他事項

◇役員 執行委員長李鍾洙 執行委員 李燦興 崔基根 安炳杰 安龍植 吳鍾京 安鳳翮 金精鍊 安得英 金鳳祚 吳春山 同候補申炳鍊 安鐵鐘 安鐵天 檢査委員長安炳珠 康禮永 吳錫龍 同候補金昆燮

「기ㅅ발」社解體

【開城】개성(開城)에서발행하려든「기ㅅ발」사에서는 동사농민잡지「기ㅅ발」을 검열코저하엿스나 현단계의 필요로 농민자중의 잡지 군기(群旗)가잇슴으로 도그리로모든 력량을집중코자 해체를 선언하는동시 성명서를 발표하엿다한다

000062

運動競技

徽文高普劍道 冒寒練習

零下二十二度나되는 酷寒을무릅쓰고『스포一스•맨』의 意氣는 最高潮에達하야 館前의風을征服하고말것가튼氣勢로 市內徽文高普劍道部에서는 明十二日로來月四日까지 每日午前七時부터一時間동안식 劍道冒寒練習을開始할터인바 校友들과一般으로有意한人士의來參을歡迎할터이라한다

講武館冒寒練習

韓稔熙氏의主管하는 市內樂園洞講武館에서는 今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三週間에 每日午前六時로一時間半式柔道冒寒練習을開始하엿는데 夜間練習도從前繼續中이라한다

아이스혹키一 早大優勝

【盛岡發電】九日에擧行하려다가降雪로因하야延期한 第六回인터一•칼레취氷上競技選手權大會最終日은 十日午前十時四十五分부터開始한바 아이스혹키一準決勝게 아래와가튼成績으로 京城帝大와 北大는早大와慶大에게 敗戰하야 午後三時부터 早慶決勝戰을擧行하게된바 結局三對一로 早大優勝하엿다

【準決勝戰】
慶應3 (2—0, 0—1, 1—0) 2北大
早大4 (1—0, 2—0, 1—1) 1城大

【決勝戰】
早大3 (2—0•0—2, 2—0•3—2) 1慶大

世界스켓트 豫選大會

【奉天十日發】全日本을代表하야 來二月瑞西에서開催하는 瑞西世界兩스켓트選手權大會에派遣할代表選手二名을選出할스켓트選手豫選大會는 十日午後一時부터 奉天國營그라운드스켓트링크에서擧行한바朝來의快晴으로 風速은四米五〇氣溫은零下十八度로서奉天으로는絶好한『컨디슌』下에 選手의意氣悠揚한中에서 그成績은아래와갓다

▲五〇〇米 1河村安雄(奉天)五〇秒 2石原省三(安東)五〇秒八 3入澤義一(安東)五〇秒八 4木谷德夫(安東)五一秒 5淺見正信(大連)五一秒七 6吉岡正雄(安東) 7小池富大(奉天)

▲五〇〇〇米 1木谷(安東)十分十三秒一 2池見(大連)十分二十二秒九 3小池(奉天)十分二十四秒六 4石原(安東)十分二十八秒一 5入澤(安東)十分三十九秒三 6河村(奉天)十分四〇秒六 (吉岡選手는病氣로棄權)

그런데千五百米와一萬米豫選은 十一日午後一時에擧行할터이라한다

蒙古레슬링選手

『오레슬링』의世界的流行이됨에딸아서 最近 歐米를威脅하는것은 蒙古의『오레슬링』選手들이다 彼等은 股를保護하는皮

紐外長靴를신으로胸部에는아모裝飾도업시 背部를 麻布로防護하야 每年一回 廣漠한草土에서猛烈無比한試合을擧行한다【寫眞은『스텝』(草土)에立한蒙古레슬링選手】

東西럭쎄對抗에 慶大優勝

本年度럭쎄의『넘버一•원』을決定할關東의覇者慶應義塾大學對關西의首位同志社大學의決定戰은八日午後二時半 花園競技場에서 田主審下에同大先蹴으로開始하야 慶大는前半에 二추라이一페널티를 後半에 一추라이一골을得하엿슴에反하야同大는 一노•추라이로終了되야十七對零으로慶大가全日本의王座를차지하기에이르럿는데 慶大가東西를正하기全勝한것은大正十三年以來로서 同大二十年의宿望도水泡에도라갓다

藤本監督渡米 慶大野球

監督藤本君과 乙種選手兩人은來二十九日發春陽丸으로渡米하야 十三日桑港에到着한後 職業選手의練習을見學하고 六大學리一그戰開始할때까지 歸東할터이라한다

三代 (11)

廉想涉 作　安夕影 畫

이튼날(四)

부친이 그리잘난인물은 못되드라도 인격적으로 아들에게만이라도 숭배를 바닷든들 얼마나 자긔는 행복하얏슬까? 덕긔는 자긔부친에게 인격적으로 경의를표할수업는것을 몹시괴로워하얏다 그러면 설혹 부친이 자긔에게 냉담하드라도 자긔가 진심으로섬겨보고십헛다

(할아버지에게서 리해가업스신것도 사실이지만 아버지만그러시지 안하도 어머니도 행복이시고 우리도 행복이엇슬것이다 경애도 제대로 올곳게 컷슬것이오 제길을 차저나갓슬것이 아닌가......)

이번 약령시를 쉬고는 스물세살이된 그다 세상의못된물에살이된 그다 들지안코 지각도 들랴들어갈때다

「어머니! 요새두 아버니께서 약주 잡수세요?」

덕긔는 숭늉을 권하며 모친에게 시다말고 엽흐로안즌 모친을 처다보앗다

「누가 아니! 약주를잡숫든 기생학에를 가든!」하고 모친은 편잔을 주다가자긔말이 넘어몹쓸스러운것을 뉘우천는이

「술상 보아나오라는말이업스니 안잡숫는게지」하고 다시 웃는낫을 지어보엿다

그러나 모친의 나종말도덕긔에게는 부친을 비웃는말로밧게 아니들렷다

「아버님께서 잡숫는거정은말고 당신이나주의를해요!」

시어머니와 화로를격해서웃목에 쪽으리고안젓든 안해가 웃음을 박아닷다

「잔소리 말어!」하고 편잔을 주고덕긔는 담배 들고가만히 화로ㅅ불에 꾹꾹눌러부친다

「너두 술먹니?」하고 모친은 얼마쯤놀란듯이 아들을돌려다보다

「어케두 곤드레 만드레가되어서 오밤중에나 드러왓답니다」

메누리는 남편이 무어랄까보아 얼른 이러케꼬자질을하고는 상을벗적들고나가버렷다

「내려술이니가 하는수는업지만...... 벌서부터 술을 배워되겟니......」

모친은 가벼웁게남으래두엇다

「친구에게 끌려서부득이면잔먹구취하나요 하지만......」하고 덕긔가 말을는호니까모친은 뒤ㅅ말을 기다리고 안젓다가

「너아버니말이냐? 너아버니

자연히 아버니신상이나 잠안될이나 나하가지안하요!」

덕긔는 이런말을하랴다가참아버렷다

말은돈헛다 모자는 담배만피고 작운사람들가티 가만히안젓다

주문간에서 아이우는소리애에......난다 모친은 압창을열고내다보며

「춘데 어듸를 이러케 싸지르는거냐?」하며 애년놈냠으래고나서

「어—우지마라! 어—우지마라!」하고 얼른다

메누리가 얼는가서 아는아이를바다안고 드러왓다

나 아이는 어미의손에서 한머니가 손에내미러보냇스나 파고 울음을 그치지안는다

「이제무슨짓이야? 한머니께 아녕안녕! 하는게아니라」하고 에미는 남으래며서 그래도 시어머니압헤서 젓통이를 내노키가 붓그러운지 멈츳멈츳하니까

「어서젓을 물리렴!」하고시어머니는 그대로 귀인손주색기를 넘겨다본다

어린애는 젓을물자 눈을감아버렷나

「새벽가티 깨여서 바스댈어노잡이오서 그러는고나」

「......리니까요......」

「고식도 더보낼게업는사람처럼다 지는 입는아니버혓다

야 그저 그런이로 몰리려니와......」하고 말을미리맛는다

「글세 예주선신문인가 부어던가 글이나 쓰시지말것스면 조치안하요! 도모지 교회도 나와버리시고 그런데간섭을 마싯스면 조흘께아니야요 염열이시지는 설교를하시고 그리고 엽시가 지나번술잡으로 여긔저긔 갈네안갈네 도라다니시니 그러면 세상에 모른나요 언제든지 알고말것이요...... 그것도 거긔다가목숨을 매달고 서양사람의 돈푼이나 어더먹어야 살형편이면 모르겟지만......」

덕긔는 일전에 병화가 새문밧 례동근처의 조처못한술집에서 자긔부친을본얘기를 나와보앗다고 신약덕이 이야기하며 듯기실흔소리를 주절대든것을 생각하며 분해못견듸겟다는듯이 이런소리를 조용조용히하나다

「그런소리를 웨날더러하니라든? 너아버니한테가서 무슨소리든 시원스럽게하렴!」

하고 모친은 편잔을주엇다

「그러니 어머니도 너그러면 안그러지——」하고 남의 아버니를맛시지말고 지청것 아버니를하시면 들고 그러케못하시게 하시면

講談俱樂部

又々新計畫發表 二月號

新年號는모다賣切되엿다! 二月號도 곳賣切되기前에 速히速히사시오

이번은賣切되기前에 速히速히사시오

村上浪六先生記念作品發表!

▲俠客列傳

大文豪가一世一代의記念作品으로 熱筆을휘두른痛快無比의大力作出現!

列傳의內容

△花川戶助六 △木津勘助 △新門辰五郞 △馬方大五郞 △黑須大藤五郞 △甲州茂吉 △奴の小萬 △川本鐵次 △御家お辰 △野狐三次 △鈍鍍銅左衛門 △幡隨院長兵衛 △飯岡助五郞 △長楽寺淸兵衛 △大前田英五郞 △放駒四郞兵衛 △勢力富五郞 △木村五郞藏 △村雨金五郞 等々!

四十三俠의血湧肉躍! 又、哀切熱涙를짜는物語 二月號『夢의市郞兵衛』의一卷、痛快無比의大長篇讀切!!

▲事實小說 秘密の秘密 …… 川端康成 (美貌의女優와岡田博士의秘密의秘密)

▲諸謔小說 御婦人閣下 …… 佐々木邦 (抱腹絶倒의上不思議의物語)

▲英雄小說 石田三成 …… 菊池寬 (一代의英雄의心事를巧하게그린大力作!)

▲大衆小說 清水次郞長 …… 小島政二郞 (日本一의講談을小說로)

▲探偵實話 怪奇の殺人魔 …… 太田常吉 (저미잇는大俠客傳)

▲名人永岡秀一 …… 鳴弦樓主人

▲快男子モロー …… 淸凉生

▲人物此人の魅力 …… 和田坊

▲滑稽權助芝居 …… 花樓馬樂

▲農夫と彫刻家 …… 菊池寬

▲芝居と映畫面白帖

▲虹の歌 …… 長田幹彦

女流音樂家百合子를싸고도는運命悲劇

▲御最負吉彌結び …… 本田美禪

江戶의處女를陶醉식이美男의哀戀秘錄!

▲麗光地に漲る …… 挾間祐行

아忍苦犧牲! 弱한女性의細腕으로家弟에人傑大郞을卒業식힌三角錐子女史의物語

▲人氣者の奧樣廻り 名流隱し藝くらべ

人氣잇는貴婦人의評判記! 조흔寫眞들이잇스니보기조흔大會

濱口首相、小泉遞相、大倉喜七郞男其他一流名家의奧의藝

▲新進花形評判記

▲戀の明暗 鐵の花環 …… 佐藤紅綠

▲運命悲劇 火の翼 …… 加藤武雄

▲壯烈悲痛 黑田騷動 …… 一龍齋貞山

▲哀婉悲戀 王冠 …… 中村武羅夫

▲美男俠快 珊瑚重太郞 …… 白井喬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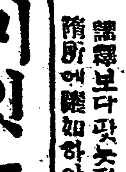
▲母國の名たあげた篠野靜江女史 ▲若手外交官の闘士澤田廉三氏 ▲第二世界の評判高い伊藤敎子孃 ▲鍋中の錚々深澤豐太郞氏 ▲挑發的なエロ鶯風峯吟子さん ▲電送寫眞界の明星丹羽保士 ▲藤間勸素娥孃 ▲市川紅梅孃 ▲強い人とても強い笠原鍈夫氏 ▲山梨事件の名檢事熊谷直氏 ▲東京新副社長岡本櫻氏

▲鼠小僧次郞吉

보라! 大佛次郞先生會心의大力作

俠盜의名을엇은小僧의자미잇는物語

配置는妖艶美女大膽不敵의青年武士와捕卒等 筆者獨自의筆致로숨맥힐자미!



中村吉右衛門氏曰く 이버것演劇과講釋보다 갓갓한鼠小僧의頭腦의조흔이 隨所에躍如하야이로브러척척풀어간다云云

이外자미잇는讀物산덤이!

定價五十錢 送料三錢

發行所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東京本鄕駒込坂下町四八 振替東京三九三〇

倭館穀組의 勞賃減下反對
사백여로동자가족 압호로살수업다고
注目되는解決前途

【倭館】 지난六일에경북왜관곡물상조합(慶北倭館穀物商組合)에서총회를열고제반사무를타협결의하엿다는데드른바에의하면 불경긔로인하야 곡물가격이 저락하락되여 만흔타격을밧는바 따라서 현재의상태로는더욱한산케되야수지(收支)가맛지아니한다는 리유로로동임금(勞賃金)인하를발포하엿는데팔십사명로동자들은아모리상 납가츠의 사정이라고하나 자긔들의심한 타격은현재임금으로도생활을이어가기 어려운것을 다시삼활 바지삼활오무를감하하면게속합하야 사백여명이 굶어죽을터이니 도저히 될수업다고대항하여책을 강구한다는데 그들의태도는매우주목된다고한다

●栗里에篤志 【栗里】 지난칠달삼십일에 어떤 무명씨가불황(不況)한세말의빈궁(貧窮)에싸인사람의 정항을 동정하야돈삼십원을리리경찰서에보내어빈궁한사람에게써달라는무명씨의독지가가잇다고한다

義州郡農民社 幹旋部大會

【義州】 의주군농민사(義州郡農民社)에서는지난칠일십이시반에읍내천도교당에서김성옥(金成玉)씨사회로일선부대회를개최하엿는데 출석부원 이백십칠인이라하며림시집행부선거를비롯하야여러보고와기타여러가지를토의하고 폐회하엿는데선임위원과결의사항은아래와갓다

◇決議事項

一、規約修正의件

一、理事增選의件

一、口金募集의件

一、旣募口金收納期日作定의件

◇任員 趙瀾碧 白元奎 崔寬涉 金貞鉉 朴允善 專務理事金成玉 白元奎

金泉高普設計問題
雙方聯合會開催
래십오일오후한시에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 금춘에개교될 고등보통학교 학급증설(學級增設)문제에대하여서는 수입자와 후원회의련합회를개최하여 해결을짓게되엿다 고한바 이미보도에보도된바 잇거니와 이에후원회에알선으로 오는십오일 오후한시에 당지대화정 긔독교청년회관에서 수입자및 후원회련합회를개최하고 학급증설문제에대한 무게를토의하리라는데 쌍방의관계제씨는 정각전에 무의래참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義州協組創立

【義州】 의주에잇는농민운동자들은 빈농계급의 생활보장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지난구일오후두시에 당지공회당에서 리재항 李戰卿씨의사회로협동조합(協同組合)창립대회를개최하엿는데 임구금(一口金)이 오원인바 일년에일원식오년동안에 출자한다는데구수제한(口數制限)으로 말하면일인일구제로한다는바 일반인사들은 장래발전에대한만은긔대를가진다고한다

理事白亨健 宋才亨 徐在亦 金周鉉 朴最鼎 李昌鎬 李戰卿 趙尙弘 張普明 邊俊彥 崔承河 高良乾 白世珍 金明運 張大吉 監事金致重 張官碩 邊用福 金長壽 金明玉

昨年中의 馬山火災統計
손해삼만이천여원

【馬山】 작년중에마산부내의 화재수는 전부십오회로 소실된것이십오호 이십이동 손해액이삼만이천백십삼원이라는데 전년에비하야출화도수(出火度數)이십삼회 손해삼십칠만사천백십일원으로그감소 된것이 출화수가팔회이요손해가 십사만 이천여원이라는바 금후아즉 제일위험한시긔에당하얏슴으로마산경찰당국에서는주야일층경계하는 중이라고한다

金泉消組理事會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잇는우리의 유일한경제적 자립긔관으로 대중의 총애를밧고잇는 소비조합에서는 십이일오전 열일시에 해조합사무소에서 리사회를 개최한다는데 리사제씨는 무루참석하기를바란다고한다

間島의史的考察
高句麗、渤海、高麗、李朝의變遷 (12)
柳光烈

新舊主人間 朝鮮人處地

黃河沿岸에서이러난漢民族은五千年의文化로東方을雄視하엿고匈奴冒頓의後裔로 元의忽必烈은中原을征服하고驅軍長驅하여歐羅巴一部外지征服하엿섯스며 그다음은滿洲에서니러난女眞이中原의主人이되여帝를稱하고잇섯더니이엿다 그리고는日本이손바닥만한섬을가지고앙세이게이러서서 一躍에亞細亞의大國인淸國을익이고再戰에北歐의强國인露西亞를물리처畢竟東亞의覇權을잡게되엿다 이日本의得意洋洋한승승뒤에는當然히눈물흘리는幾多의叛退者가잇섯스니 그中에먼저와인것이朝鮮人이다 朝鮮人은萬에隋煬帝의百萬大兵을한칼에 漢民族을習伏케하엿스나그形勢가그러로 갓스면中原을征服하고 東亞의覇權을한번잡어보앗슬는지도모르나新羅의親唐과高句麗自體의內紛은畢竟大高句麗의完成을보지못하고말앗다 그리고高麗末年에들어온崔朱의學은朝鮮人思想界를荼毒함이 甚하야 自主思想이缺乏하엿고 李朝以來로壬辰倭亂과丙子胡亂이잇서 朝鮮人에게自强自立을促進하엿스나 終始깨닷지못하고 文弱에흘러 黨爭과虛禮를是尙하야 畢竟日本의東洋覇權의뒤에서우는자가되고말앗다 朝鮮이完全히日本의保護國이되자 李相卨 李東寧等은눈물을먹음고 間島로가서瑞典義塾을열고 靑年學徒를敎育하며 將來의機會를엿보며 무슨淸讓을하던가海牙에셔열리는萬國平和會議에가서 日本의對韓政策을彈劾하려하엿스나 成功치못한것은世人이周知하는事實이다 이와가티間島는憤慨慷慨의士의集合處가되는同時住民은親日派와 親淸兩派로나누이게되엿다 아아!世界的漂兒인朝鮮人은喪家狗와가티或은이主人에 或은저主人에轉轉하는悲境에싸지고말앗다 當時親淸派는演義會를組織하여其代表者를 吉林에派遣하고吉林巡撫에對하야 間島韓民은日韓官憲에게服從할意思가업고길이淸國官憲에信賴할터이故로 充分히保護하여달라고請願한일이잇고 淸國官憲도此等團體를利用하야日本의施設에 反對하는形跡도잇섯다 또儒林一派에서는『間島問題가튼것은 日本이韓國을爲하야 計하는것이아니라 實은東三省을엿보는것이라』는長文의意見書를奉天總督에게提出하는等 物情이騷然하엿고日淸兩國人間에여인朝鮮人의處地는甚히困難하게되여 當時親淸派인支那勝이日本憲兵에게捕縛된것도그一例이다 露領과朝鮮內地에서는義兵이蜂起하야時時로間島를襲擊하니 間島는統烟의影이비接하엿섯다

日淸對立中 派出所施設

이와가티兩國가騷亂한中에도派出所의日本人職員들은 憲兵分遣所를식히여戶口의再調査를하야戶籍을만들고龍井村에普通學校를設立하야 敎育을하려하고 慈惠醫院을設하야施療를하며會寧으로부터龍井村外지에電線을架設하고 道路橋梁을修繕하며豆滿江의渡船을監視하고里程表를要處處에세우며 間島郵便所를開設하고處處에市場을세우며農事試驗場을設立하야農事改良에힘쓰는等한창야단을벌엇다

日淸間衝突 死傷者多數

統監府의施設이 이러케야단스러울사록 淸國官憲은壓迫驅退를求하엿스나外事竟淸國의實力이不聞으로 잇스니外事竟淸國政府는大官及多數의兵員을間島에派遣하야對抗하기로하고 局子街에邊務公署를設하고 邊務督辦에陳昭常과幫辦將格인副都統吳祿貞을任命하고 少將格인協都統으로 大兵을附하야 間島에派遣하기로되엿섯다 이에北京駐在日本公使林權助는淸國政府에抗議한結果 護衛兵으로兵員巡警四千三百餘名이來駐하게되엿다 當時日本側은 憲兵과巡査를合하야二百名이不過하얏슴으로 統監府派出所는二百餘名으로는 衝突을演할計劃外에 如此히하면龍井附近을防備케하더라도 더욱甚하면國境守備隊를出動식히려하엿섯다

兵營建築과 淸兵의被殺

日淸間에重要한衝突事件으로는天寶山事件 山口封禁事件 龍井村日淸人爭鬪事件 里程標木拔取事件 犯罪人奪取事件 姦淫殺事件 煽動事件 豆滿江渡船妨害事件 防殺命事件 下泉坪에서의淸兵暴行事件 局子街에서의日本暴行事件 禹跡洞憲兵分遣所襲擊事件 伏沙洞衝突事件 交番所建築妨害事件 太拉子衝突事件 日本人拘禁事件等이나그中에禹跡洞憲兵分遣所襲擊事件은淸兵三名을射殺하고 三名을負傷시키엇스며 日本憲兵도三名이負傷한事件이엇다 그端緒는 溫突屋三間建築으로부터 始하엿다 禹跡洞은會寧과龍井村과의交通路에 該當하기때문에淸國官憲은「淸國領土內에서淸國官憲의許可를엇지아니하고 兵營을建築하는것은不可하니 卽時中止하라」는것이엿다 日本憲兵은聽而不聞하고 依然其工事를進展식히는中淸兵六十餘名이와서 그家屋을破壞하려함으로 畢竟日憲兵과衝突된것이며 一下泉坪暴行事件은 淸兵數十名이 憲兵分遣所에入하여서로衝突이나서 一淸兵은 射殺된일까지잇섯다

交番所建築 淸國이抗議

그後에龍井村에 交番所를設立하고자할때에 淸國官憲은統監府派出所가 警察權을擴張하는것은 淸國의主權을侵하는것이라하야工事를中止케하고 [illegible]兵力으로써 中止케하겟다하엿다 그要旨는

一、日本人은交番所를 세울權利가업다

二、地方人民保護는淸國이自此에當할지니라

三、統監府派出所의韓民保護權은絶對로不認함

四、그런故로該工事는斷然코此를不許하며萬一억지로建築하면淸國의主權을侵害하는者인故로兵力으로써此를阻止할지니라

하는것이엇다 이에對하야統監府派出所에서는

一、此地方은所屬未定의領土로서現在北京에서兩國政府間에交涉中인즉淸國領土다고할수가업다

二、韓民保護를爲하야日本官憲이少數의憲兵을帶同하고此地에來한것은最初에貴政府에通牒한者이다

三、派出所가韓民保護를爲하야必要한行動은貴官의干涉을不容함

四、旣히巡査를두는以上交番所를建築함은當然한일이다

五、如斯한小問題로서地方에서紛爭을이르키는것은無益하니現狀을維持하고北京의兩國政府의解決을待하자하엿다

鄕校畓一斗落 作料가二石
가혹한징수

【靈光】 령광군군남면용암리(靈光郡南面龍岩里)에사는리종섭(李宗燮)김휴채(金休彩)김과홍(金果洪)리성학(李成學)등은영광군향교답(靈光郡鄕校畓)작인으로 지난이십칠일에 금년소작료를납부하려군에왓다가의외의 과숙한소작료에 놀내여불납키를 동의하고그대로 도라갓다는데 상세를듯건대 전긔용암리향교답은 매개가 일두락(一斗落)에 십여원식이월하아니라생수답(生水畓)으로 금년갓치 비가자진해는 오히려 작년보다흉작(凶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소작료의약배나더되게 곡징하라고한다는바 전긔리종섭은 답육두락(畓六斗落)에작년소작료오석칠두(五石七斗)밧든것에금년은 십석(十石)을 매엿고김과홍은답일두락(畓一斗落)에작년칠두오승(七斗五升)밧든것에배이상되는 이석(二石)을 내리하며리종섭답육두락(畓六斗落)과김휴채답칠두오승락(畓七斗五升落)은 작년에소작권이동당시군출장원 정만희(鄭萬熙)의 회구로권리금으로 군당국에 팔십원의적립금(積立金)까지납부한것으로 일반은군당국의 무리한작료곡징에비난이자자하다한다

海州電氣問題 解決前途杳然
지금까지일천이백개피등
住民側態度强硬

【海州】 물가인하로해주시민대회실행위원회를지난칠일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개최한후전등료금인하에대하야 토의하얏는데 그동안은시민들의 폐등수속에관하야는약한도실행위원회에서 전긔회사에 교섭하야아직까지는 폐등료(廢燈料)를 밧고야 폐등식히는것과가튼 그러한회사의 부리한일을 업시하도록하자하야 교섭위원으로 譜亭 원봉현 원석희(元晳喜)최상직(崔相稷)제씨가피선되어그리는날회사당국을방문하야그무리한것을 질문하얏든바 지배인은이후로는절대로 그러한일이업도록하겟다는회답을엇고도라왓스며 아직까지 폐등된수가 약일천이백등이며천번발표한단체로 폐등신청한곳이 탕옥조합(湯屋組合)과리발조합이잇스며 위원회의 일홍으로 경과보고를약오천매에쇄하야시민전부에게 배포하는등문제는쌍방이대치하야 태도가극히강경함으로언제나해결이될는지막연하다한다

古郡面民大會

【兵營】 지나칠일오후두시에 전남강진군고군면(全南康津郡古郡面)면민대회를 병영공보교광장에서 신임면장 김용선(金容善)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야 림시집행부선거에 의장 조화두(趙禾斗)서긔장룡규(張龍圭)량씨가피선등단한후 여장김용선씨의 학교의연금지수상황(學校義捐金收支狀況)=興學契醵出穀及麥收支狀況)보고가잇섯스며 좌긔사항을토의한후 동육시에 폐회하엿다고한다

◇報告及討議事項

一、學校義捐金收支狀況報告

가、右에對한大會의承認

나、右의殘務處理方針

一、興學契醵出穀及麥收支狀況報告

가、右에對한大會의承認

나、右에對한將來計劃及實行方法

다、規約制定委員囑托

一、其他

海州西邊面에
四人組强盜出現
식도를들고문박게서위협
八十餘圓强奪逃走

해주군서변면 동양리(海州郡西邊面東陽里) 에서미곡상(米穀商)을하는 고정진(高貞鎭)의집에 지난십일밤 열한시경에 돌연히사면으로괄날이두러오며돈을내노아라고고함을 치며 만약돈을내여놋치아니하면 너의집에 불놋코 갈 이라고 문박게서 위협을함으로 주인은 엇지할줄을몰라 현금팔십여원을 드려잇는것을 문틈으로 내여주어그들은 밧아들고종적을 감추고주인은집안에서도적이라는고함을치게되자 마치동리를 순행하든사람들이달려가즉시해주경찰당국에 고발을하게되여 해주경찰서 형사대가 즉시현장을 조사하는한편범인을 엄탐중이라하며 먼저사면으로괄날이 두려온것을 보아사인일단(四人團)의강도단인 이틀납니다한다

義州協組理事會

【義州】 지난구일 하오오시에 협동조합(協同組合)제일회리사회(理事會)를 개하엿는데 사무분담은아래와갓다한다

◇常務任員 理事長李戰卿 專務理事李昌鎬 常務理事白亨健 金用錫

惡德債權者 私差押을敢行
채무자가불응함에
婦女外지毆打重傷

【洪原】 함남홍원군용원면도룡리(咸南洪原郡龍源面都龍里)빗써지군들이 발호(跋扈)하는데 요지음은 음력세말이다가옴에따라 더욱심행한다는바 채권자의 신누럼군이란 소위보행군(步行軍)들이 그곳주민들사이에서로차후차차 생겨 채권자측에서는 소관주재소에 고소를제기한사실로 당지청년들은 불러다가취조를 밧고 돌려보내는등의사실도잇다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면 중동리(中洞里)에거주를두고 쌀장사를하는 박모는리자까지 불과사원에 넘지못하는돈을 채무자인홍모가 내지안는다고하야 기명(器皿)기타양식등을 강제차압하는등 못볼양한 행동을 취함으로이를 제지하는홍씨의처를마루에서 끌어내려중상을입게하여홍씨의 처는방금생명이 경각에잇다고하는데 피해자는 소관주재소에고소를제출하엿다고하야일반은당국의 해문제에 대하야처치를주목한다고하며또는벼(稻)를사려단이는김한복(金漢福)과황모는도룡리(都龍里)서모란사람이 돈이십원을 내지안는다고하야벼다섯섬과콩한섬을차압하여온사실도잇다고한다

一面大擧하야 禁酒斷煙實施

【慈城】 평북자성군삼풍면(平北慈城郡三豊面)에서는 현하심각한 불경긔에 우리가술을 금치안코 담배를끗치안코 토산을 애용치안흐면 우리는살수가업다하야 김창현 김승수(金承壽)외 여러사람들발긔로 일반은동성응하야 금주단연회를 조직중에 잇다고한다

馬山隔離病舍
道立醫院서引受
신축이완료되엇슴으로

【馬山】 마산부격리병사(馬山府隔離病舍)는 작년십이월중에 공사가완료 되엇슴에 사용조례(使用條例)의발포상당소의 유감되는 점이잇서즉시개소(開所)치못하엿든바지난구일에 동조례의발포가 나리게되는동시 동병사를 도립마산의원에 인계하야 의탁경영(依托經營)되게되엿다는데 신환자가 발생되는때에는 즉시개소(開所)되리라는바 병사사용료는 환자한사람에대하야 하로에 일원식을증수하며 부족금은 마산부에서지출할것이라고한다

善山讀者優待

【善山】 본보선산지국(本報善山支局)에서는아성극단(亞星劇團)이지난륙일에귀미역전(龜尾驛前)에와서 흥행하는긔회를리용하야 지난칠일 밤에는 본보독자에게 관람료를 반할히로 한바여성황을 이루엇다하며 해극단에서도 예술을다하야 일반관람자에게 만흔칭찬을 바다스며 그익일인 팔일에성주(星州)로떠난다고한다

移出米大減退의 昨年馬山港貿易

【馬山】 작년의마산항무역상황은재계의 심각한 불경긔의영향으로 작년일월이래의 마산세관지소(馬山稅關支所)의통계에의하면 그간십이개월동안의 류계는 수십년래에 업는비약한수자를 보게되는바 이출산액 삼백구십사만 사천여원 이입산액 삼백이십사만오천여원 합계칠백십구만여원인데 전년도 오백육구만원에대하야 이백오십구만원의 감퇴를 보게되여 약반액이나 감퇴되엿슴은수십년래에 처음보는 풍년이되엿스나 살이려 곡가참락으로 십월이래 미곡이출이 극히부진한산된 원인이라는데 그중요이출입품과 무역통계는 다음과갓다고한다

移出部	
米及穀	二、五九七、六九四
大豆	二五、五五七
魚類	八、七五八
牛皮	一五二、八五一
綿絲	六六三、五〇一
金銀	二六五、六五九
移出合計	三、九四四、三六八
移入部	
小麥粉	一六五、四二五
砂糖	一〇五、三四一
毛織物	六三、六九一
石炭	二五三、四〇九
絹織物	一七二、五四九
セメント	三六、一四六
木材	四六、二〇〇
機械類	三七、一七四
綿布	三四、一五〇
肥料	四四六、七七〇
移入合計	三、二四五、六九一
總合計	七百十九萬五十九圓

昌城에强盜

【新義州】 일일밤열한시경에 평북창성군창산면(平北昌城郡倉山面) 학송동일번지 리창식(李昌植)의집에 [illegible] 이온 새운후 태천군(泰川郡)에서 가지온돈 이백오십원을내라고 협박함으로도 하는수 업시돈칠십일원을 강탈당한바 래일주재소로오라고호언한후그대로종적을 감추엇는바 소관북진경찰서(北鎭署)에서방금범인체포에노력중이라한다

一八靑年會組織

【寧邊】 평북녕변군연산면(平北寧邊郡延山面)에서는 피폐하야가는농촌미가 폭락불경긔에 촌민이살수업다함으로 말매암아 메뉴지청년들은 이개월전부터 조직준비중이든바지도난맹퇴치풍속개량여러듯시을목적으로청년회를조직하엿다는데 화연규가등지에 조직이되여 회원이 백여명에달한다하며 메뉴시는 청심으로풍속개량에 힘쓰온다한다

寡婦와못살게햇다고
妨害者亂刺重傷
창칼로찔러중상을닙혀
犯人은熙川警察이取調

【新義州】 평북희천군동창면 아청동(平北熙川郡東倉面我城洞一二三) 리순준(李詢俊)은작년십이월 십칠일 오후한시경에 그동리김처흡(金處洽)집에서 역시그동리에사는 김렬(金烈)(二三)을 칼로찔러 중상을닙혀 희천경찰서(熙川署)에서살인 미수죄로 취조를밧고잇다는데 그원인은 가든동리사는과부 한치성(韓致星)(三)과 가티살것을 약속하엿스나 피해자가 방해하야 못살게 한것으로 이것을분히역이어 그와가티살해하려한것이라한다

狩獵中에
사람을誤射
후창군에서

【新義州】 사람을 산도야지(山豬)인줄알고쏘아서죽이사실이잇다 평북후창군연면 죽평동(平北厚昌郡延面竹坪洞)사는일본인목하장길(木下長吉)는 일월 일일오전열시경후창군후창면부흥동(厚昌郡厚昌面富興洞)에서 산양하던중 마츰그동리윤고렬(尹基烈)(三)를산도야지로 알고 총으로쏘아서 즉사케하엿다 그자는방금 후창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한다

雨後猝寒으로 慶山地方麥凶

【慶山】 경북경산(慶山)지방에는 지난삼일밤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야 구일까지 맛치여름장마와가티 지리하게 계속하다가 구일밤부터 북풍이몹시불며 일긔가갑작이 추워져서 십일아츰에는 령하십구도(零下十九度)라는남선희유의대혹한이엿슴으로 비물(雨水)이 싸지못하고 그냥어러붓튼관계로 금년보리는 흉작을면키 어려우리라고일반은우려하는중이라한다

猝寒으로 自働車不通
경북김천에서

【金泉】 경북김천(慶北金泉)지방에서는 지난십일에 령하십오도의혹한으로 길거리에 행인은 극히희소하엿고 지례(知禮)선산(善山) 상주(尙州)방면으로 통행하는 화물자동차가 가다가 정지하고 가다가 정지하야 근래초유의 더위라고한다

豊基에窃盜

【榮州】 경북영주군풍기면성내동 (榮州郡豊基面城內洞) 오십일번지박봉관(朴鳳觀)의집에는지난칠일오후팔시경에 절도가침입하여서빌며 소동을 일으키엿다는데배는 아직초녁임으로 그집 젓방에 잇든사람에게 발각되여 드듸여 목적을달하지못하고 유유히종적을감추어버렷다한다

社告

本報江界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支局名稱 江界支局 支局長 金子善 朝鮮日報社白

本報瑞山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支局名稱 瑞山支局 支局長 申恒均 朝鮮日報社白

本報海南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支局名稱 海南支局 支局長 朱寬鎬 朝鮮日報社白

本報始興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支局名稱 始興支局 支局位置 京釜線始興驛前 支局長 曹喜雲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安仲分局長李昌浩君은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平海支局白

今般本支局員朴陽信君은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成曙鎬 朝鮮日報禮山支局白

今般本支局員李鉉龍君은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楊口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分局名稱 社倉分局 分局長 李鋪淙 朝鮮日報長城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申容徹 朝鮮日報南海支局白

今般本支局員崔觀仲白鶴兩君은辭任하고左와如히中江分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中江分局記者 李昌宣 朝鮮日報慈城支局白

今般本支局員洪淳河、李學模、魏蘊成、李英植四君은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集金人 朴丙乙 朝鮮日報端川支局白

今般本支局員李元熙君은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淸州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李一稿 同 金學傑 同 金晨一 朝鮮日報城津支局白

今般本分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李七雨 朝鮮日報潭陽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朴相圭 朝鮮日報無極分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朴敬演 會計兼記者 尹相國 顧問 李相勳 同 金鎔奉 朝鮮日報瑞山支局白

今般本支局員李獻許君은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鄭炳七 朝鮮日報木浦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李正岩 同 金寶馨 同 金仁洙 記者 朴曉星 朝鮮日報海南支局白

今般本支局員金漢龜君은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吳炯澤 朝鮮日報長湍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分局名稱 連安分局 分局長 李致鎬 記者 李準文 朝鮮日報安東支局白

범의어금니 (123)
苑洞人譯 駱山生畫

대폭발 (四)

『아님니다……각하! 결코 죵작업는말이 아님니다! 커는 오래동안 그와 가티일을 하야보앗기때문에 그사나히를 잘붓고잇슴니다 그가한번 이럿타고 말할때에는 반드시 그가티말할만한 리유를 그는 가지고잇는것임니다』

『그럿치만 그리유라는 것이 시연치안흔것이겟지?』

라고 총감은 마수림경부의 어귀를 풀넛다

『아님니다 결코 그럿치안슴니다』

고 마수림경부는 거의 울것가티 흥분이되야가지고 다시 말을이엿다

『그사나희의말을 듯지안흐면 안될것이라고 커는 단언합니다 오컨세시라고 그는 말하얏다지 안슴니까? 그럿슴니다! 작정코집은폭발되는것입니다 인케 몃분남지도아니하얏슴니다 그러니속히 나가시기를바람니다……각하! 커의소원입니다』

『그러면 도망질을 하잔말인가?』

『아님니다 도망질을 하자는것이 아님니다 잠시 몸을 피하자는 말슴임니다 일부러 위험에 갓가히할필요도 업지안슴니까? 각하에서도 생각하야보십시요』

『아모튼 조와이……』

『그럿치만……각하! 부럴라가 그럿케 말하얏다지 안슴니까?』

『아모튼 조타니까……』

총감은 마수림경부의 의고를 돌너버리엇다

『만약 자네가 거긔대해서 두려운생각을 가지고잇다고 할것가트면 먼저 내가명령한것을 다행으로알고 브럴다의집에가잇스면 조흘것이아닌가?』

마수림경부는 녯적의 군대생활을 하든때그대로 부동의자세(不動의姿勢)를취하고 손을들어 엄숙히 경례를하며

『각하! 커는죽어도 이곳에 그대로 멈추어잇겟슴니다』

고 한마디를하고는 다시돌나서서 먼저번 자긔자리로 나갓다

여러사람사히에는 또다시 얼마동안의 침묵이흘넛다 총감은 팔짱을지고 실내를 왓다갓다하더니 형사과장과 관방주사에게대하야

『케군의의견은엇더한가? 역시 나의의견과 갓지안흔가?』

고물엇다

『네! 그럿슴니다』

『그럴터이지! 첫째로 브럴라의말한 소위 추정(推定)이란것은 아모러한 리론의 근거를 갓지못한것이란말일세……그뿐만아니라 우리들이 이가티 엄중히 감시하고 잇지안흔가? 그럿코보면 아모리 폭탄이라하더라도 튀여들어올수가 업지안흔가? 그리고더욱이 그의말대로 이집을 폭발식힌다고하면 누구든지 폭탄을 던지는사람이 잇서야할것아닌가? 그런데 대체 어데로부터 엇더케하야 던진단말인가?』

그리지

『역시 현지와 가튼방법으로 하는것이 아니겟슴니까?』

고 관방주사가 말을바덧다

『무엇? 그러면 그대의 밋는바는……?』

총감은 놀나운얼굴로 관방주사를 건너다보앗다 그러나그는 이말에는 아모러한 대답이업섯다 그리고 총감도 더 물으려고도 하지아니하얏다 사실총감자신으로서도 달은여러사람들과 낫찬가로 말할수업는 불쾌한늣김을 가지고잇섯든것이다 그리고그것이일분일초로 진행됨을딸아 비상한고통으로되고 심지어는 먼커감정과 모순되는 감정에까지 이르게하얏다

『오컨세시』라는생각이 끈힘업시 그의머리속에서 회돌고잇다 그는 두번째나 시계를 내여보앗다 아즉도 십이분이나넘엇다 그리고다시십분!

과연 그흉악하고도 권능(全能)한의사의 간단한결과로서 이집이 폭발될것인가?

『아닌다! 결대로 그럴리가 업다!』

고 그는 마루창을으나불의지것나 그러나 그가 눈을돌어 묵묵히서잇는 부하들의얼골을 건너다 보앗슬때에는 상바예감이 그의머리읏을짐으는것가텃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자신의가슴속─심장까지도 조여드는것가튼 늣김을바덧다

第一月十日부터 特別名畫大公開
大메트로뽀리탄會社特作品 最新鋭名監督조지힐氏
戰爭活劇 끄샷크 全十卷
존길바트氏 르네아도레氏 主演
大메트로뽀리탄會社特作品
大喜活劇 黃金狂時代 全十卷
챠리채풀링氏 自監督主演
入場料 十錢均一
미나도座

◇一月十日낫부터特別大公開!
◇호레쓰스세다社特作
活劇 天空悍馬 全六卷
◇메트로쏠드윈社特作 아치아랑크氏監督
戀愛戰線 全六卷 主演 마리온데비스孃
◇메트로쏠드윈社超特作 W·S·반다익氏監督
名畫 異敎徒 全九卷
主演 美男라몬노바로一氏 美女 루비아도례孃
◇에덤은靑春男女의多感多淚의로맨스를血과熱의노래로서描破한 近來의稀有의稀貴한秀逸!
電九一二八 朝鮮劇場

近日封切
꿈을이저바린사람 全十卷
朝鮮劇場

◎○□△社超特作品
아리랑그후이약이 十二卷
羅雲奎作編劇 尹逢春
羅新芳 南宮雲 李圭卨諸氏主演
◎○□△社特作品
鐵人道 八卷
羅雲奎 林春鶴 朴齊行 朴貞姬 金蓮寶諸氏主演
級高 常設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監督 李慶孫 撮影 李弼雨
楊子江
南京 上海 外 中國 名星 出演
上海在留朝鮮映畫人의손에된 朝鮮映畫 大公開
團成社에서封切